

소세키를 통해 보는 메이지·다이쇼의 시대상 연구*

- 작중 인물들의 직업을 중심으로 -

윤혜영**

(e-mail: yun1971@cnu.ac.kr)

目次

1. 서론
 2. 메이지·다이쇼시대의 직업양상
 3. 주인공 직업의 계보
 4. 직업이 없는 여성들
 5. 결론
-

1. 서론

「유신혁명과 동시에 태어난 나를 보면 메이지(明治)의 역사는 즉 내 역사이다」¹⁾라고 말하고 있듯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라고 칭함)는 메이지와 다이쇼(大正) 초기를 살았고 도쿄(東京)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뒤 문부성 제1회 국비장학생으로 영국에서 유학한 엘리트였다. 소세키의 작품 속에서도 종종 그려지는 서양유학은 「성공을 위한 관문」²⁾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세키 또한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 1903년 일본인 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쿄제국대학 영문과의 교수가 되었다. 직업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성공을 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A00166)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일본근대문학전공

1) 夏目漱石(1911) 「マードック先生の日本歴史」 『漱石全集』 第11巻 岩波書店. p.267.

2) 윤혜영(2008) 「소세키 소설 속의 한국·만주·서양의 형상」 『일본연구』 제3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228.

그러나 소세키는 1907년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아사히(朝日)신문사에 입사하였고 이 일은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그는 문학박사학위를 거절하였다. 입사 당시 「아사히신문」에 쓴 「입사의 글(入社の辭)」³⁾을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소세키는 명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후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와시다 고야타(鷺田小弥太)는 「그 인생론의 중심에 직업론을 놓았기 때문」⁴⁾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소세키의 직업관은 1911년 아카시(明石)에서 연설한 그의 「도락과 직업(道楽と職業)」에 잘 나타나 있고 이 연설에 주목하여 「자기분위(自己本位)」에 입각한 소세키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⁵⁾

그러나 이것은 모두 소세키의 실생활에 있어서의 직업관에 주목한 것으로, 메이지·다이쇼시대의 직업양상과의 관련이나 소세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⁶⁾ 즉, 「자기분위」에 입각한 소세키의 직업관만이 두각 될 뿐 그의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 및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은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職業)」, 「취직(就職)」, 「일(仕事)」을 키워드로

3) 「대학을 그만두고 아사히신문에 들어가니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놀란 얼굴을 한다. 그 중에는 왜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큰 결단을 내렸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중략)대학은 명예 있는 학자가 등지를 틀고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존경받을만한 교수나 박사가 은거하는 곳인지도 모른다. 2,30년 건디면 칙임관(勅任官)이 될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그밖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곳일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곳이다. 아카몬(赤門)으로 들어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세어보지 않아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일일이 물어보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략)아사히신문에서 입사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단지 문예에 관한 적당한 양의 작물(作物)을 적당한 때에 공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예상의 저술(述作)을 생명으로 하는 나에게 이만큼 고마운 일은 없다, 이만큼 기분 좋은 대우는 없다, 이만큼 명예로운 직업은 없다, 성공할지 못할지 등은 생각할 일이 아니다.」 (제11권 pp.493~494)

본문인용 텍스트는 『漱石全集』(1974~1975 全18卷, 岩波書店)이고 본문해석은 인용자가 하였다. 인용문 뒤에는 인용한 권수와 페이지를 기입하였다.

4) 鷺田小弥太(2005)『漱石の「仕事論」 人生、窮まれば仕事』彩流社. p.3.

5)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笠井哲(2008)「夏目漱石における職業観について」(『研究紀要』(49) 45-50, 福島工業専門学校), 鷺田小弥太(2005)『漱石の「仕事論」 人生、窮まれば仕事』(彩流社), 石川正一(1991)「漱石の講演について--職業・中味・道徳」(『金沢経済大学論集』 25(2), 金沢経済大学経済学会), 구현숙(2007)「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직업관」(『日本文化研究』 第2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등이 있다.

6) 『노방초(道草)』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인물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재산과 수입이라는 사회적 조건을 밝히고자 한 논문은 있지만 작품 분석이나 테마에 접근하지는 않았다.(吉田 瀬生(1995)「「道草」作中人物の職業と収入」『群像日本の作家1 夏目漱石』小学館. pp.163~173)

하여 메이지·다이쇼시대의 직업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한 뒤 본격적으로 대중을 의식해서 쓴 신문소설⁷⁾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들의 직업양상 및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취직은 매우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취업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각 시대의 가치관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⁸⁾는 지적도 있듯이 본 연구는 소세키의 직업인식, 나아가서는 그의 시대인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연구로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메이지·다이쇼시대의 직업양상

시미즈 이사오(清水勲)가 「부국강병이라는 근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개개의 에너지인 직업. 인구의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상류계급, 10퍼센트가 되지 않는 중류계급, 그리고 90퍼센트를 차지하는 하류계급으로 이루어진 메이지사회의 실상」⁹⁾을 직업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보고자 했듯이 직업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다이쇼시대 직업의 특징은 개화가 진행되면서 에도(江戸)시대부터 이어져왔던 직업이 사라지거나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면서 점점 다양화, 전문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인구는 초기 3,000만 명이었지만 후기에는 5,0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제1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줄고 상·공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게 된다. 소세키 또한 「일본에 현재 직업이 몇 종류 있고 그것이 옛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치로 증가하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¹⁰⁾이라고 말하면서 대학에 직업학이라는 강좌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직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에 힘입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황족(皇族), 화족(華族), 사족(士族), 평민 등의 계급은 엄연히 존재하였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여전히

7) 아사히신문에 연재된 중·장편소설은 『우미인초(虞美人草)』(1907.6.23~10.29), 『쟁부(坑夫)』(1908.1.1~4.6), 『산시로(三四郎)』(1908.9.1~12.29), 『그 후(それから)』(1909.6.27~10.14), 『문(門)』(1910.3.1~6.12), 『괴안 지나기까지(彼岸過迄)』(1912.1.1.~4.29), 『행인(行人)』(1912.12.6~1913.11.17), 『마음(こゝろ)』(1914.4.20~8.11), 『노망초(道草)』(1915.6.3~9.14), 『명암(明暗)』(1916.5.26~12.14)이다.

8) 松尾博志(1983)『就職とは何だろうか もう一つの明治・大正・昭和史 -代表的な企業人の職業選択』PHP. p.3.

9) 清水勲(2009)『ビゴーが見た明治職業事情』講談社学術文庫. p.5.

10) 夏目漱石(1911)「道楽と職業」『漱石全集』第11巻 岩波書店. p.297.

구시대적인 신분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1871년 화족과 사족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었고 식산흥업(殖産興業)이라는 국가의 정책 하에 그들이 은행 및 철도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경영을 맡는 등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직업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가모 에지(加茂英司)는 메이지시대의 직업관에 대해 「신분에 맞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¹¹⁾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교육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당시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계층이 직업을 규정하고 계층이 학력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학력이 직업을 규정했던 것」¹²⁾처럼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메이지신정부는 이미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 번(藩)에서 추천받은 사족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관료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또한 직업선택의 고민이 없는 부유한 평민들은 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등교육을 받았다. 즉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실적과는 관계없이 계급이나 재력이 직업의 선택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고, 대부분 혈연이나 지연에 의한 소개로 취업을 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소세키의 작품 속에 취직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부탁하러 다니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학문을 연마하여 입신출세를 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시골에서 상경하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지만¹⁴⁾ 성공의 대명사이기도 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문은 매우 좁았고 결국 「시골(고향)에도 도시에도

11) 加茂英司(2005) 「職業選択としての自営業 -明治の職業観-」 『大阪学院大学通信』第35卷, 大阪学院大学通信教育部. p.67.

12) 위의 논문 p.78

13) 대표적으로 『우미인초』의 아사이(浅井)는 시골출신으로 「가능한 한 (취직을 위한) 활동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라고 말하며 외교관 시험을 준비 중인 무네치카(宗近)에게 취직을 부탁하러 가고, 『그 후』의 히라오카(平岡)는 은행을 실직한 뒤 실업가의 아들인 다이스케(代助)에게 취직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마음』의 「나(私)」의 부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에게 선생에게 가서 취직자리를 부탁하라고 권하고, 『피안 지나기까지』의 게타로(敬太郎) 또한 실업가인 다구치(田口)에게 취직을 부탁하러 가는 장면이 있다.

14) 『산시로』의 산시로가 구마모토(熊本)에서 도쿄로 상경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시 시골에서 상경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도쿄에 간다. 대학에 들어간다. 유명한 학자를 만난다. 취미와 품성을 갖춘 학생과 교제한다. 도서관에서 연구를 한다. 글을 쓴다. 세상의 갈채를 받는다. 어머니가 기뻐한다.」(第4卷 p.15)

동화되지 못하고 도시를 표류」¹⁵⁾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였다. 소세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후』의 히라오카(平岡)의 경우 확실히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쿄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것으로 보아 『우미이초』의 아사이(淺井), 『마음』의 나(私), 『피안 지나기까지』의 게타로(敬太郎)와 마찬가지로 상경한 지방출신 청년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도쿄출신이나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직자리를 부탁하고 있다. 이 또한 혈연이나 지연이 중시되었던 사회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두 대학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케우치 요(竹内洋)는 「러일전쟁 때부터 「학사취업난」이 사회문제」¹⁶⁾로서 언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소수의 학사출신 이외의 다수의 가난한 평민들의 삶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즉,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도래하였지만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직업선택이나 기회 균등면에서는 많은 제한이 뒤따르던 시대였던 것이다.

소세키는 「도락과 직업」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강연의 서두에서 당시 대학을 나온 수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업을 찾아 돌아다니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실례로 하숙비도 내지 못하고 일 년 이상 하숙에 틀어박혀 있는 지인(知人)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생활은 대학졸업생이라는 것에 대한 하숙집 주인의 신용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설에서 소세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천 엔(円)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천 엔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직업이 「타인본위(他人本位)」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 자기라는 것이 없어서 버리기 때문에 「자기본위」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연설은 소세키의 직업관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대학을 나온 특정계급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는 후반부에 문학서를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

원래 문학상의 서적은 전문적인 저술이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공통된 점에 대해 비평이나 저술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 관계없이 계급에 관계없이 적나라한 인간을 적나라하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모든 다른 장애를 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훌

15) 十川信介(2008)『近代日本文学案内』岩波書店. p.51.

16) 竹内洋(1995)「教養知識人の運命 -三四郎と美人生-」『漱石研究』第5号, 翰林書房. p.138.

를하고 가장 폐가 적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第11卷 p.312)¹⁷⁾

즉, 직업선택이나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 또는 당시 사회의 모습이나 문제점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없고 특정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분위」, 「타인분위」라는 말을 이용하여 직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문학서를 읽으라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소세키가 문학작품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그의 문학작품 속에 어떤 직업을 가진 인물이 그려져 있는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주인공 직업의 계보

소세키가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한 뒤 처음으로 신문에 게재한 소설은 『우미인초』이다. 첫 신문소설이라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테마나 인물구성에 있어서 소세키 신문소설의 기본골격을 형성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오노(小野), 고노(甲野), 무네치카(宗近), 후지오(藤尾), 사요코(小夜子), 이토코(糸子) 등 20대의 젊은 남녀가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천황에게 은시계를 받을 정도의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오노는 취직은 하지 않고 입신출세를 위해 재력가의 딸인 후지오와 결혼하려고 한다. 오노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한 고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철학이론만을 늘어놓으며 늘 집에만 틀어 박혀있는 인물이고 무네치카는 외교관이 되려고 준비 중이다. 여성인 후지오, 사요코, 이토코는 모두 무직이다. 그리고 근대적인 면모를 갖춘 자아가 강한 후지오나 고전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사요코나 바느질을 잘 하는 이토코의 주요관심사는 결혼문제에 귀결된다. 즉, 『우미인초』에는 국가의 주역이 되어야 할 젊은이들의 직업은 배제되어 있고 사회성마저 결여된 젊은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소세키 작품 속 주인공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17) 「元來文學上の書物は専門的の述作ではない、多く一般の人間に共通な点に就て批評なり叙述なり試みた者であるから、職業の如何に拘はらず、階級の如何に拘らず赤裸々の人間を赤裸々に結び付けて、さして凡ての他の墻壁を打破する者でありますから、吾人が人間として相互に結び付くためには最も立派で又最も弊の少ない機関だと思はれるのです。」

18) 일반적으로 직업이란 평소 종사하는 업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을 가리킨다. 통상적인 의미로 직업은 아니지만 편의상 주부, 학생, 무직을 직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직업	고등유민	교수	회사원	하급관리	기타 (학생, 무직 포함)
주인공의 직업	3	2	1	1	3

주인공들은 주로 20대~30대에 해당하며 관공서의 하급관리인 『문』의 소스케(宗助)와 회사원인 『명암』의 쓰다(津田)를 제외하고는 고등유민, 학생, 교수로 분류된다. 그리고 『쟁부』의 주인공인 「나(自分)」는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을 받은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고 나머지 주인공은 모두 대학출신이다. 당시 대학을 다니려면 학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그들의 경제적인 「富」가 필수조건이기도 하였다.

먼저 주인공들의 직업 중 가장 많은 것은 고등유민이다. 고등유민이란 메이지시대부터 쇼와(昭和)초기에 유행했던 말로 대학을 나온 엘리트지만 취직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으로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다이스케(代助)와 선생, 그리고 스나가(須永)가 이에 해당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취직은 물론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거나 현실사회를 비판하기만 한다. 소세키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의 경제로 봐도 상당히 터무니없는」¹⁹⁾ 일인 것이다.

고등유민인 다이스케의 삶은 직업을 얻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는 히라오카나 테라오(寺尾)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이스케의 실상에 대해 히라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처럼 국부(局部)를 찾아다니며 현실과 악전고투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일본이 빈약하든 못났든 일하고 있는 중에는 잊어버리니까 말이야. 세상이 타락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지. 자네처럼 한가한 사람이 보면 일본의 가난이나 우리의 타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방관자만이 말할 수 있는 거지. 즉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쁠 때는 자기 얼굴 같은 건 누구나 잊어버리잖아」 (중략)

「자네는 돈이 많아서 안 돼. 생활이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일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야. 말하자면 도련님이니까 품위 있는 말만 하는 거지.」

(第4卷 pp.404~405)²⁰⁾

19) 앞의 책 「道楽と職業」 p.298

일본 대 서양의 관계가 나쁘고 혹독한 생존경쟁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일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던 다이스케는 미치요(三千代)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자연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지만 친구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고등유민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한다. 결국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해왔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고 그는 직업을 찾아 길을 헤맬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도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세상과는 단절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선생이 등장한다. 「나」는 외로운 선생과 친해지고 유일하게 선생의 유서를 받게 되는 인물인데 「나」와 부인의 대화를 보면 「나」에게도 고등유민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잠재된 동질감이 「나」와 선생을 연결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단지 졸업했다는 자각이 있을 뿐,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나를 봤을 때 부인은 「교사?」라고 물었다. 대답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그럼 공무원?」이라고 또 물었다. 나도 선생도 웃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아직 무엇을 하자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실은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여서... 우선 뭐가 좋을지 뭐가 나쁠지 직접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하지만 당신은 아마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태평스러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궁해보세요. 아무래도 당신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내 친구 중에는 졸업하기 전부터 중학교 교사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부인이 말하는 사실을 인정했다.

(第6卷 「상 선생과 나」 pp.90~91 밑줄; 인용자)²¹⁾

20) 「僕見た様に局部に当つて、現実と悪闘してゐるものは、そんな事を考へる余地がない。日本が貧弱だつて、弱虫だつて、働らいてるうちは、忘れてゐるからね。世の中が墮落したつて、世の中の墮落に気が付かないで、其中に活動するんだからね。君の様な暇人から見れば日本の貧乏や、僕等の墮落が気になるかも知れないが、それは此社会に用のない傍觀者にして始めて口にすべき事だ。つまり自分の顔を鏡で見る余裕があるから、さうなるんだ。忙がしい時は、自分の顔の事なんか、誰だつて忘れてゐるぢやないか」(中略)

「君は金に不自由しないから不可ない。生活に困らないから、働らく気にならないんだ。要するに坊ちゃんだから、品の好い様なこと許かり云つてゐて、——」

21) 「私にはたゞ卒業したといふ自覚がある丈で、是から何をしやうといふ目的もなかつた。返事にためらつてゐる私を見た時、奥さんは「教師?」と聞いた。それにも答へずにとみると、今度は、「ぢや御役人?」と又聞かれた。私も先生も笑ひ出した。

「本當いふと、まだ何を考へる考へもないんです。実は職業といふものに就いて、全く考へた事がない位

선생 또한 금전문제를 둘러싼 인간에 대한 불신과 친구인 K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선택한다.

스나가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취직은 하지 않고 「한가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게타로는 스나가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군인의 아들이지만 군인을 아주 싫어하고 법률을 배웠지만 관리나 회사원이 될 생각이 없는 퇴영(退嬰)주의에 찬 남자였다. 적어도 게타로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중략)아버지는 회계관으로서 꽤 높은 지위까지 올랐었고 원래 재산을 늘리는 길을 잘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자(母子) 모두 먹고 사는데 불안하지 않은 편만한 처지이다. 그의 퇴영주의도 대부분 이 무사태평한 처지에 익숙해져 분투의 자극을 잃은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아버지가 비교적 훌륭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지 그에 대한 평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친척이 있어 얼마든지 출세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는 이러쿵저러쿵 자기 좋을 대로 말하며 아직껏 꾸물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안다. (第5卷 「정류장」 p.42)²²⁾

이렇게 태평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스나가는 역시 자신의 출생의 비밀로 인해 괴로워하고 사랑도 이루지 못한다.

고등유민인 이들은 금전문제로 인해 위기에 놓여 고민하지만 그들의 생활의 기반이 「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분위」에 입각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한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소세키가 이상으로 여기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 적응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관념의 세계에 빠져 살고 있다가 밝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なんですから。だいち何れが善いか、何れが悪いか、自分が遣つて見た上でないと解らないんだから、選択に困る訳だと思ひます」

「それも左右ね。けれどもあなたは必竟財産があるからそんな呑気な事を云つてられるのよ。是が困る人で御覽なさい。中々あなたの様に落付いちや居られないから」

私の友達には卒業しない前から、中学教師の口を探してゐる人があつた。私は腹の中で奥さんのいふ事實を認めた。」

22) 「敬太郎に須永といふ友達があつた。是は軍人の子でありながら軍人が大嫌で、法律を修めながら役人にも会社員にもなる気のない、至つて退嬰主義の男であつた。少くとも敬太郎にはさう見えた。(中略)父は主計官として大分好い地位に迄昇つた上、元來が貨殖の道に明らかな人であつた丈、今でも母子共衣食の上に不安の憂を知らない好い身分である。彼の退嬰主義も半ばは此安泰な境遇に慣れて、奮闘の刺戟を失つた結果とも見られる。といふものは、父が比較的立派な地位にゐた所為か、彼には世間体の好い許でなく、實際為になる親類があつて、幾何でも出世の世話をして遣らうといふのに、彼は何だ蚊だと手前勝手許並べて、今以て愚図々々してゐるのを見ても分る。」

그리고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한 뒤 연속해서 쓰인 『우미인초』 『쟁부』 『산시로』에는 무직이거나 학생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고학력이며 오노를 제외하고는 자산이 있는 집의 자제들이다. 메이지시대에는 각자의 학력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안내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는데²³⁾ 대학졸업자들에 대한 안내는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당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수는 매우 적었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코스이기도 했던 대학출신자들은 취직안내서를 읽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세키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소세키 자신과 마찬가지로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특정계층에 속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재이지만 재산이 없던 오노는 자신에게 결여된 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출세보다는 도의를 선택한다. 『쟁부』의 「나」는 실연의 아픔을 겪고 죽을 결심을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위해 5개월간 일을 하다가 다시 상경한다. 산시로는 꿈을 품고 상경하여 도쿄제국대학에 다니지만 그 꿈은 점점 퇴색되고 방황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작품이 막을 내린다. 고등유민과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오노는 입신출세에 도움이 되지 못 하는 선택을 한 것이고 「나」 또한 고등유민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예상되며, 방황하는 산시로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다. 무직이나 학생은 현실세계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못하는 직업에 속하지만 그들의 앞날 또한 현실세계로부터 멀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소세키 자신이 교수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인지 이치로(一郎)와 겐조(健三)는 대학교수로 조형되어 있다. 고등상업학교(高商)를 졸업한 이치로의 동생인 지로(次郎)가 설계회사에 다니는 것을 참고해보면 당시 학벌과 직업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형은 인력거로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개 서재에 들어가 무엇인가를 했다. 가족들도 거의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다. 용건이 있을 때면 2층에 올라가 일부러 문을 여는 것이 상례였다. 형은 언제나 큰 책을 보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만년필로 작은 글씨를 쓰고 있었다. 가장 많이 눈에 띈 모습은 멍하니 책상 위에 턱을 괴고 있는 것이었다.

(第5卷 『행인』 「돌아온 뒤」 p.580)²⁴⁾

23) 『취직 안내서(就職の手引き)』(酒巻源太郎 1911.12)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각종 실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부녀자 및 학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24) 「兄は俵で学校へ出た。学校から帰ると大抵は書齋へ這入つて何かしてゐた。家族のものでも減多

작품 속에는 대학교수인 이치로와 겐조의 직업적인 소신이나 활동은 거의 그려져 있지 않다. 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이치로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가급적 서재에 가는 것을 피한다. 결국 이치로는 「아무리해도 믿을 수 없다」는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죽든지 미치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고뇌한다. 유학을 다녀와 대학교수가 된 겐조 또한 양부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어. 한번 일어난 일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단지 여러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도 모를 뿐이야」라고 부정적인 말을 반복한다.

고등유민과 학생, 교수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소스케와 쓰다이다. 소스케는 유복한 집안의 자제로 대학을 다닐 때는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친구의 부인인 오요네(お米)와 맺어지게 되면서 학교를 중퇴한다. 그리고 부모가 그를 외면하여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고 지방을 전전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관공서의 하급관리가 된 것이다. 『명암』이 쓰인 것은 다이쇼 초기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샐러리맨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쓰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세키는 당시의 관습이나 사회적인 제약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인공을 조형해내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메이지·다이쇼시대의 중류 이상의 고급전문 직종으로는 귀족, 외교관, 고급관리, 의사, 장교 등을 들 수 있는데 소세키 작품 속에서 위의 직업은 나타나지 않고 하층계급이 많이 종사했던 인부, 신문판매원, 화류계의 여성, 농민 등도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고등유민이나 학생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직업에 속하지 않고 그들의 사회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했던 직업선택이나 기회 균등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세키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한 작가는 아니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 당시 근대인들의 삶에 대한 고뇌와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일본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소이자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키워드로 볼 때 소세키 작품 속의 인물들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조형되어 있는 것이다.

に顔を合はす機会はなかつた。用があると此方から二階に上つて、わざわざ扉を開けるのが常になつてゐた。兄はいつでも大きな書物の上に眼を向けてゐた。それでなければ何か万年筆で細かい字を書いてゐた。一番我々の眼に付いたのは、彼の茫然として洋机の上に頼杖を突いて居る時であつた。」

4. 직업이 없는 여성들

메이지시대 초기에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형성되고 자본주의사회가 발달하기 전이어서 여성이 직업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청일·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에 나간 남성들의 사회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여성이 대체하게 되었고 다이쇼시대에 들어와 여권확장운동이 펼쳐지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여성을 위한 취직안내서까지 출판되기에 이른다.

소세키가 작품을 쓰던 당시에는 이미 「초등학교 교사, 여의사, 간호원, 전화교환원, 방적·제조·활판·제본·인쇄국 등의 여공, 약사, 점원」 등 다양한 여성들의 직업이 있었고,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등의 여성작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874년에는 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도쿄여자사범학교가 개교되었는데 「입학시험의 수험생은 193명, 합격자는 74명(배율 2.6배), 그러나 4년 후 제1기 졸업생은 15명」²⁵⁾이었다고 한다. 이어 1899년에는 고등여학교령이 내려지고 2년 뒤에는 일본여자대학교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사나 육아야말로 여성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남자의 직업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쉽지 않았」²⁶⁾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류층 아가씨들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현모양처를 육성하는 것에 주력한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소세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자주인공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런데 그 여성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모두 무직에 속한다. 미혼여성은 아무개의 딸 또는 아무개의 여동생 등으로 묘사되어 있고 기혼여성은 전업주부이다.

미혼인 후지오나 미네코(美禰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근대사회가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한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관심은 결혼이고 도피처 또한 결혼이다. 후지오는 부모님이 정해놓은 결혼상대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해 결혼상대를 정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모든 허영심이 사라진 후지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영어가 유창하고 본인명으로 된 통장과 명함까지 갖고 있던 미네코 역시 히로타(広田)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들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였지만 영혼의 피로를 느끼고 노노미야

25) 앞의 책 『ヒゴーが見た明治職業事情』 p.154

26) 松田良一(1991) 『日本のシゴトロジー』東京書籍. p.214.

(野々宮)도 아닌 산시로도 아닌 제3의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치요코의 경우에도 스나가를 비겁하다고 하면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기혼인 미치요, 오요네, 시즈(静), 나오(直), 오노부(お延) 등은 경제적인 능력조차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미치요는 다이스케와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남편인 히라오카에 의해 다이스케와의 만남이 단절되고 오요네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둘 다 지병을 갖고 있다. 시즈는 「나는 지금 선생을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도 나만큼 선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당사자인 남편은 자살을 하고 만다. 끝까지 부인에게 자살한 이유를 남기지 말아 달라는 말은 얼핏 보면 배려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시즈에게는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나오 또한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남편과 살면서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혼이 나간 빈껍질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그저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라고 다짐하는 오노부의 모습을 통해서도 일종의 애수가 느껴진다. 즉, 여성들은 지극히 남성의존적이며 그녀들의 주요관심사는 아이를 출산하는 일과 가사, 그리고 남편의 관심을 받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이에(家)」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 일본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거나 여성의 취업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그늘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 경제력을 갖춘 독립된 여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여성은 전혀 그려지지 않고 그러한 고뇌 또한 비치지 않는다.

소세키가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도락과 직업」이라는 연설을 한 1911년에는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를 중심으로 하여 최초의 여성잡지인 『세이토(靑鞆)』가 창간된 해이기도 하다. 동시대를 살던 소세키 또한 여성들의 자립에 대한 의지 및 사회적인 활동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연재 첫 소설인 『우미인초』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편견²⁷⁾을 드러낸 소세키는 자신의 딸들에게도 「소설을 읽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거의 엄격하게 금지」²⁸⁾하였다고 교코(鏡子)부인이 회고하고 있듯이, 여성의 사회활

27) 「이(理)도 모르고, 비(非)도 모르고, 세상이 왜 회전하고 왜 안정이 되는지 물론 모른다. 위대한 고금(古今)의 무대가 끝없이 발전하는 사이에 자신이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원래 모른다. 단 말주변만은 좋다. 천하를 상대로 하는 것도 국가를 적으로 돌리는 것도 한 무리의 군중을 눈앞에 두고 일을 처리하는 것조차 여자는 못한다.」(第2卷『우미인초』p.32)

28) 夏目鏡子述, 松岡讓筆録(1994)『漱石の思い出』文春文庫. p.318.

동의 제약이 많았던 현실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작품 속 여성의 직업 및 사회활동의 양상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세키가 살았던 메이지·다이쇼시대 초기에는 격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직업이 다양화, 전문화의 양상을 띠게 되는데, 고등교육을 받고 관료 사회에 진출하거나 실업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소수의 화족, 사족이나 부유한 평민들이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계급체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대다수인 일반 평민들은 교육은 물론 직업 선택이나 기회 균등면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힘든 시대였다.

소세키는 연설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직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역설하였는데, 대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신문소설에 등장하는 소세키 작품 속 남자 주인공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고등유민, 학생, 교수로 분류된다. 직업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인공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기반이 있고 대학교육까지 받은 엘리트이다. 따라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할 입장이지만 현실을 극렬하게 비판하거나 현실에 놀라면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개화의 조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또 직업의 성질이 나뉘면 나뉘수록 우리는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 버리는 묘한 현상이 생긴다」²⁹⁾는 소세키의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직업과 신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여 「자기본위」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려낼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삶과 미래는 매우 어둡다.

그리고 남자주인공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 주인공들은 무직 또는 주부로 직업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은 「이에(家)」를 중심으로 한 당시 사회가 지향했던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여학교를 졸업한 뒤 오로지 결혼이 인생의 목표인 듯이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근대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경제력을 갖춘 여성의 관심사도 결혼이며 아무 것도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은 더욱 가정 또는 남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여성에 대한 편견 및 여성의 자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직업이 없는 여성들을 통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시대를 대표하는 근대의 문호이자 문명비평가로서 유명한 소세키의 시선은

29) 앞의 책 「道楽と職業」 p.307

농공상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소시민들이 아닌 자신도 속해있던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参考文献】

- 加茂英司(2005) 「職業選択としての自営業 -明治の職業観-」 『大阪学院大学通信』 第35卷, 大阪学院大学通信教育部. p.78.
- 清水勲(2009) 『ビゴーが見た明治職業事情』 講談社学術文庫. p.5.
- 竹内洋(1995) 「教養知識人の運命 -三四郎と実人生-」 『漱石研究』 第5号, 翰林書房. p.138.
- 十川信介(2008) 『近代日本文学案内』 岩波書店. p.51.
- 夏目鏡子述, 松岡譲筆録(1994) 『漱石の思い出』 文春文庫. p.318.
- 夏目漱石(1911) 「マードック先生の日本歴史」 『漱石全集』 第11卷 岩波書店. p.267.
- _____ (1911) 「道楽と職業」 『漱石全集』 第11卷 岩波書店. p.297.
- 松尾博志(1983) 『就職とは何だろうか もう一つの明治・大正・昭和史 -代表的な企業人の職業選択』 PHP. p.3.
- 松田良一(1991) 『日本のシゴトロジー』 東京書籍. p.214.
- 吉田熙生(1995) 「「道草」作中人物の職業と収入」 『群像日本の作家1 夏目漱石』 小学館. pp.163~173.
- 鷺田小弥太(2005) 『漱石の「仕事論」 人生、窮まれば仕事』 彩流社. p.3.
- 윤혜영(2008) 「소세키 소설 속의 한국·만주·서양의 형상」 『일본연구』 제3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228.

要 旨

本研究では、「職業」、「就職」、「仕事」をキーワードにして明治・大正時代の職業様相について考察し、漱石の新聞小説に登場する主人公を中心にして彼らの職業と認識について探ってみた。

漱石が生きていた明治・大正時代には激変する時代に応じて職業は多様化、専門家していた。また高等教育を受けて官僚社会に進出したり、実業界をリードしていくのは少数の華族、士族や財産の多い平民であった。このような社会の変化によって、新しい階級体型が形成されていった。社会構成員の大半を占める平民たちは教育はもちろん、職業の選択や機会均等において新しい時代が標榜する自由と平等を駆使することが難しい時代であった。

漱石は演説を通して若者たちに職業に臨む心構えについて力説し文学書を読むことを勧めているが、作品の中の男主人公の職業は高等遊民、学生、教授と分類される。職業が大変限られており、主人公たちは殆んど経済的な基盤があり大学教育まで受けたエリートである。彼らは社会を導いていく主役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立場であるが現実を極度に批判したり現実に驚いたりしながら現実社会との距離を保っている。社会に積極的に参加しない職業と身分であるため「好きなこと」を選んで「自己本位」で働ける人物を描くことも可能であるが、彼らの生活と未来は暗い。

そして男主人公に強い影響を与えているように見える女主人公たちは無職または主婦で、職業が与えられていない。近代的な女性として描かれており経済力を持っている未婚の女性の関心は結婚であり、何一つ頼る所のない女性たちは家庭または男性に頼るしかない。女性に対する偏見及び女性の自立に対する否定的な観点が、職業のない女性を通して現れている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夏目漱石、新聞小説、主人公、職業、就職、仕事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